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국가예산 확보 '굳히기 모드' 돌입

국회 상임위 심사 앞두고
송하진 지사, 국힘 의원이
위원장인 문체위 등 찾아
전북 현안사업 반영 건의



송하진 도지사가 27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을 찾아 문화관광분야 주요 사업의 예산 반영 협조를 요청하고있다.

송하진 도지사가 본격적인 국회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국회에 출격해도 주요 핵심사업의 예산변영을 위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위원장과 간사를 맡고 있는 상임위를 집중 공략했다.

송 지사는 27일 국회를 방문해 전북 신산업지도 완성을 위한 핵심 동력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25일 조보업 행정부지사가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실득 작업으로 다지기에 나선 데 이어 송하진 지사가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에게 예산변영을 강력 건의하며, 국회 상임위 단계 국가예산 확보 굳히기에 나선 것이다. 먼저, 송 지사는 이채익 문체위 상임위원장을 찾아 전북도민의 자존의식을 고취하고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 주요 사업의 예산변영 협조를 요청했다.

'전라유화진흥원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반영을 건의하고, '고창·부안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의 국비도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군산시 동행의원인 송석준 국토위 간사를 만나서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의 예타 통과와 기본계획 수립비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올해 기본계획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고창갯벌과 염전을 연계한 해양생태관광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과 '전주 탄소소재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반영도 건의했다.

이어, 김태홍 농해수위 위원장에게는 전북이 강점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농생명산업분야 사업설명과 함께 예산변영 협조를 요청했다.

동물용의약품의 시제품 생산지원 시설 구축을 위한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 반영과 '국가식품플라스타 푸드 파크 조성' 예산변영을 건의했다.

또한 '농업 기후변화대응 교육기반 구축 사업비 반영'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사업의 예타 통과 및 사업비 반영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산자위원이면서 예결소 위원으로 참여가 예상되는 신정훈 의원을 만나 전북의 경제체질 개선과 신산업지도 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설명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탄소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사업인증 플랫폼 구축'의 예산 반영 건의와 함께,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사업'의 증액 반영도 요청했다.

산내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와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사업의 신규 반영을 건의했다.

한편, 도는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사에 앞서 도 지위부가 총 출동해 전방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는 도청에서 남천현 우석대학교 총장, 박맹수 원광대학교 총장, 홍순직 전주대학교 총장이 참석해 자치경찰위원회 이형규 위원장과 (가칭)메신저 풀 발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치안정책 수립 젊은 감각으로

전북도 자치경찰위
정책자문단 '메신저 풀'
전국 최초 운영키로

도내 대학 경찰행정학과
재학생으로 자문단 운영

교수대표, 학생대표가 함께 참석해 '전북형 자치경찰제' 발전과 '가칭'메신저 풀' 운영에 대한 소통·공감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청년 정책자문단이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발맞춰,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개발과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해 우석·원광·전주대학교(이상 가·다·논, 이하동일)와 손잡고 전국 최초 '가칭'메신저 풀을 운영하기로 했다. 메신저 풀(Messenger Pool)은 '전달자·경찰'이라는 뜻으로 정책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소통하자는 의미이다.

전북도는 도청사에서 남천현 우석대학교 총장, 박맹수 원광대학교 총장, 홍순직 전주대학교 총장이 참석해 자치경찰위원회 이형규 위원장과 (가칭)메신저 풀 발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전북도를 만들기로 뜻을 모으고, (가칭)메신저 풀을 성공적 운영할 수 있도록 진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경찰학과

(가칭)메신저 풀은 치안정책에 관심이 큰 경찰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위촉된 50명의 학생들은 젊은 감각으로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을 발굴해 전북도 정책 플랫폼인 '소통대로'를 통해 제안하기로 했다.

우선, 가칭으로 정한 정책 자문단의 명칭을 제도 취지에 맞고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자 공모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우수 정책제안도 제안분야 연달에 자치경찰위원회 표창(감사장)도 수여하는 한편, 각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부여가 가능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현장 간담회도 추진해 자문단과 자치경찰위원회간 생생한 소통을 추진하고, 위원회 추진 시책에 대해 도민을 대표해 의견을 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유호상 기자

'태조어진 봉안축제' 30일 전주한옥마을 경기전서

전주시는 오는 30일 경기전 및 어진박물관 일원에서 문화향유 프로그램인 '봉패지향 전주, 태조어진을 되시다'라는 주제로 태조어진 봉안축제를 개최한다.

전주시와 문화재청, 전북도가 주최하고 (사)하에랑역사문화연구원 주관하는 이번 봉안축제는 경기전 곳곳과 어진봉안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경기전 미션탐색을 비롯한 다채

미션Zone 등 3가지 테마로

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축제는 ▲미션Zone ▲체험Zone ▲관람Zone 등 3가지 테마로 마련된다.

미션Zone에서는 경기전과 관련된 내용을 체험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경기전 참봉에게 미션지를 받은 뒤 곳곳을 돌아다니며 미션을 수행하면서 경기전의 역할과 의

미를 되새길 수 있다. 사진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사)하에랑역사문화연구원(070-7527-6409)으로 하면 된다.

체험Zone의 경우 말 그대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어진 퍼즐을 색칠해 맞춰보는 '나도 임금님', 임금의 여진을 그리는 '화공인 어진화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한지에 어진을 그려보는 '어진 따라

그리기'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현금을 지참해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관람Zone은 경기전 안에 위치한 조경묘를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전주이씨의 시조 이한과 시조비 경주 김씨의 위패를 모신 조선왕실의 시조 사당인 조경묘는 평상시에는 개방하지 않는 사당인 만큼 색다른 경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GIMJE CITY 축! 전주매일 창간

경제도약, 정미로운 김제

지속 발전 가능한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시